

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이동, 배치, 편제, 전략 등에 관한 군사사회사적 의미*

- 제111사단을 중심으로

황석규

1. 머리말

2차 세계대전 말기 제주도(濟州島)에 일본군의 주둔 사실을 군사사회사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들이 관광자원화와 동굴에 대한 연구로 치우쳤던 점과 비교한다면 그 의미가 새로울 수 있다. 2005년에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연구보고서』(제주도동굴연구소), 2003년에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제주도) 그리고 2005년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남제주군) 등이 작성된다. 이전까지 일본과 한국에서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를 군사사회사적 의미로 다루려는 연구들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신주백의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2003년),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의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2004년), 강순원의 석사학위 논문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2006년), 황석규의 「제주도 일본군 제111사단 주둔 실상 -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 그리고 박찬식의 「제주도내 오름과 일제군사유적」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인들에 의한 증언과 체험에 근거한 몇

황석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AS0018).

가지의 글이 존재하지만), 일본군 제주도 주둔에 관한 전체적인 역사성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일본군 주둔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역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은 필리핀해전에서 패한 이후 본토를 사수하려는 작전을 시작하면서 1945년 3월에는 제주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²⁾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총 병력을 12만 명으로 추산할 때 거의 2/3의 병력인 7만5천명이 제주라는 작은 섬에 주둔했음은 일본이 제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인식하게 한다. 특히 결7호 작전을 일본 본토 이외에 유일하게 조선의 제주도를 선정하여 전략전술을 전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결호작전 중 최하위의 전력과 주민 전쟁 동원 수행을 통해 미군의 공격으로부터 본토 수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본군 전술전략이 결7호 작전이다.

결7호 작전 수행을 위해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 중에 가장 정예부대로 주목되는 제111사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 군사사회사적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제111사단이 제주도 주둔을 위해 이동을 하게 되었는가(3절), 사단의 임무는 어떤 것이었는가(4절), 주민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5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일본군 제111사단의 주둔 사실은 사회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6절)에 주목하여 전쟁 말기 일본군 주둔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朝鮮終戰의 記錄』(1964), 가미야지니(神谷丹路)의 『한국 가까운 옛날 여행』(1994)이 있다.

2) 1944년 10월 일본군은 필리핀해전에서 패전하고 1945년 2월 3일 미군은 마닐라 시내에 진입한다. 2월 19일에는 이오섬(硫黃島)에 상륙하고 이후 연합군의 공격로는 오가사와라 열도 - 간토 평야 - 대만 - 오키나와 - 규슈로 예상된다. 조선 특히 제주도는 역사지리적으로 일본을 연결하는 주요 지역이기에 일본군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따라서 1945년 1월 22일 일본 육군대신은 전국적인 새로운 통수조직을 수립하면서 종래의 조선 상주군 사령부를 폐쇄하고 제17방면군 사령부를 새롭게 편성한다.

2. 연구방법

전쟁말기 일본군 주둔의 군사사회사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그리고 현지 주민 및 그 당시 주둔한 일본군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츠카사키 마사유키의 도움으로 일본군 방위청 도서관에 소장된 당시 일본군 기밀문서(作戰機密日誌(乙綴), 部隊編制概要)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해방 직후 일본군 무장해제를 담당했던 미군정의 다양한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외 일제하 제주도 군사시설에 대해서 미야타 세스코(宮田節子)가 해설한 『朝鮮軍概要史』와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朝鮮終戰の記錄』 등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본토결전에 대한 문헌으로는 츠카사키의 『神州不滅 本土決戰の實態』(2000)와 신주백의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 편제와 병사노무동원을 중심으로』(2003) 등을 고려하였다.

현장조사는 기존의 전수조사(제주도, 2003)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현장 재조사를 1년 동안 이행하였다. 제111사단 지역의 갯도진지, 포대, 참호, 고사포진지, 항공기지, 비행기 격납고 등의 거의 모든 일본군 전적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일본군 군사시설에 관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이행하였다. 문헌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강제동원자, 마을주민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일본군으로 주둔했던 일본인 등이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제111사단에 대한 연구는 문헌, 탐사 및 구술조사로 1년 동안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3. 결7호 작전과 제111사단의 이동경로

I. 결7호 작전

일본본영에 의해 제주도가 해군 항공기지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주목받

기 시작한 것은 일본과 제주 상공에 미군 B29기가 출현하는 1944년 5월경이다. B29기가 제주도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 북규슈 지역까지 공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일본 본토가 공습권역에 들어오면서 일본 육군은 제주도 모슬봉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여 주둔하기 시작한다. 육군 전과경계기 갑 1기, 을 2기를 배치하고 제6대공, 제14대공 무선부대원 120명을 파견한다(츠카사키, 2004: 227).

제주도가 중요한 일본군 군사거점으로서의 급부상하게 된 것은 미군과의 본토결전 구상에 따른 것이다. 1945년 2월 9일 일본방위총사령관은 미군과의 본토결전에 대비하여 7개 방면의 육·해군 공동작전을 준비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 방어 작전계획이며 이른바 ‘결(決)7호 작전’이다. 미군 공격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작전 암호명을 “결호작전”이라 불렀는데, 결1호 작전은 홋카이도(北海道), 지시마(天島) 방면, 결2호 작전은 토호쿠(東北) 방면, 결3호 작전은 간토(關東) 방면, 결4호 작전은 토카이(東海) 방면, 결5호 작전은 추부(中部) 방면, 결6호 작전은 규슈(九州) 방면, 제7호 작전은 제주도 조선방면으로 구분하게 된다. 결호작전은 일본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결7호 작전이 조선의 제주도를 선택하고 있다.

미군이 필리핀에 이어 1945년 2월 이오섬(硫黃島)을 함락시키자 오키나와와 규슈지방 등 일본 본토에 대한 상륙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3월 12일 일본 최고전쟁지도자회의인大本營(大本營)은 각군 작전주임참모회합을 소집한다. 회의에서 미군의 상륙지점은 결호작전 지역 중에서도 제주도와 홋카이도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회의는 결1호 작전과 결7호 작전을 보다 강도 높게 다루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에 미군상륙은 북규슈 방면에 상륙을 시도하려고 할 때이거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만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시기는 8월 이후로 예측했다.

결7호 작전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1945년 4월 15일 채(柴, 토리데)부대로 명명되는 제58군사령부가 신설 편성되며, 일본 본토 부대를 비롯하여

만주의 관동군 등을 포함하여 종전 직전까지 4개월 사이에 무려 7만5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제주도에 집결하며, 전역을 요새화한다. 종전이 되지 않았다면 8월 하순에 일개 사단(제120사단) 약 1만 명 가량이 서부지역에 증강 배치될 예정이었다.大本영은 미군의 제주상륙을 기정사실화하고 8월 5일 제120사단에 제주 파견을 명령하고, 8월 20일에 제주 상륙을 계획하고 있었다(部隊編制概要).

결호작전지역에서 준비되고 있는 평균적인 전력밀도는 km당 보병대대가 0.2~0.9개까지 분포하고, 기관총은 2.5~9정, 야포는 0.6~3.3문, 박격포(분진포)는 0.6~5문, 기타 화포는 0.8~2.5문 등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전력밀도는 km당 보병대대 0.3개, 기관총 3정, 연대포 0.9문, 박격포 1문, 화포 1.3문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 보병의 밀도는 엔슈나다(遠州灘) 다음으로 북규슈 방면과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 9개 상륙예상거점 중 8번째, 기관총과 박격포 6번째, 야포는 8번째, 기타화포는 7번째 등이다. 이것에 근거하면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장정도는 결전부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도에서 결호작전을 위한 병력배치 범위는 정면 100km로 최장인 엔슈나다(遠州灘) 150km 보다는 짧으나 북규슈 정면, 간토 구쿠리하마(九十九里濱)와 함께 2번째로 길이가 긴 편이다(강순원, 2006: 19).

< 표 1 > 결호작전 전력밀도표(1945.6.15 전후)³⁾

		범위	보병대대(개)	기관총(정)	연대포(문)	박격포(문)	화포(문)
규슈 (九州)	남규슈 동정면	80km	0.6(1.3)	6(15)	2(3.7)	1.6(4.8)	2.5(5.4)
	남규슈 서정면	70km	0.4(1)	3(14)	1(3)	1.2(4.8)	1.4(4.8)
	북규슈 정면	100km	0.3(0.9)	2.9(10)	0.6(1.9)	1.2(3.7)	0.8(3)
고치(高知) 정면		36km	0.9	2.5	3.3	5	4
제주도 정면		100km	0.3	3	0.9	1	1.3
엔슈나다(遠州灘) 정면		150km	0.2(0.3)	2.5(3.8)	1(1.5)	0.8(1.2)	0.9(1.2)

3) 參本第2課, 『各要域別 1km당 戦力密度概見表』, 『本土決戦關係兵備綴』(1945년 7월 중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간토 (關東)	가시마나다 (鹿島灘) 정면	70km	0.6(1.4)	59(17)	2.4(4)	0.9(7)	1.9(8)
	구주쿠리하마 (九十九里濱) 정면	100km	0.4(1.0)	4.5(13)	2(3)	0.6(5)	1.9(6)
	사카미만 (相模灣) 정면	40km	0.8(2.3)	9(31)	2.5(5)	1.5(1.3)	2(1.2)

※ 괄호 내는 방면군 직할 결전병력을 당해 방면으로 투입하는 경우의 전력 밀도

결7호 작전을 위한 전술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해안 결전이고, 또 하나는 후퇴배치 내륙결전이다. 전자는 해안에 바로 인접한 곳에 진지를 구축하여, 내지에 교두보를 만들게 하지 않고 적을 격퇴하는 전법이다. 이 작전에서는 상대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아군도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적이 제공권을 가지고, 함포사격 엄호가 있을 때는 더욱 상황은 심하다. 한편 후자는 해안에서 약간 후퇴한 지점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상륙은 허락하지만, 장기 지구전 태세로 적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작전이다. 아군 전력의 조기소모는 피할 수 있지만, 적에게 한번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츠카사키, 2004: 255-256).

두 전술전략에 대해 제17방면군과 제58군사령부는 갈등을 일으킨다. 제17방면군 “참모본부에서는 1945년 초부터 해안결전을 주장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해안결전보다는, 내륙결전을 지향하고, 후퇴배치를 위한 진지구축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오키나와전에서도 현지군은 참모본부의 의지에 반하여 내륙결전을 선택했다”(츠카사키, 2004: 256). 해안결전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제58군 사령부는 제주도에서 후퇴배치작전의 진지구축을 계속한다. 즉, 미군 상륙과 동시에 타격을 입히려는 전술보다는 상륙을 허용하고 장기간 게릴라식 방어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제1방어선이 무너지면 제2방어선으로 이동하고 최후에는 한라산(어승생악을 중심으로) 전체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전투로서 미군에 타격을 주려는 전술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 전술전략은 해안선을 방어하지 않고 미군을 내륙으로 유인하며 중산간지역에서 주민을 전쟁에 동원하면서 유격전을 통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옥쇄작전(玉碎作戰)의 계획이다.

II. 초기 서부지역 주둔(1945.4 - 5.20)

일본은 필리핀해전에서 패한 이후 본토를 사수하려는 작전이 시작되면서 1945년 3월에 제주도 서남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 시기에 신설된 제96사단(장 중장 이이누마 마노루 飯沼 守)과 혼성여단인 제108여단(장 소장: 히라오카 츠토무 平岡 力)은 동시에 3월 하순에 제주도 배치의 명령을 받고, 편성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제주도에 상륙한다. 제96사단은 4월 8일에서 22일까지 여수와 목포항에서 제주 산지항으로 이동하고, 제108여단은 4월 15일과 16일 양일 동안에 대마도에서 모슬포항으로 이동한다.⁴⁾ 제96사단은 제주지구로 그리고 제108여단은 서귀포지역으로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편성을 완료하지만 일부는 모슬포지구에 주둔시키고 계속해서 계획된 축성작업을 진행한다.

4월 하순에 제58군 사령부(관 중장 나가쓰 사비주 永津左比重)가 신설됨과 동시에 제주도 소재의 부대들을 지휘하며 편입시킨다.⁵⁾ 하지만 96사단과 108여단은 무장도 허술했고, 나이도 많았으며, 전투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투경험을 지닌 강한 부대 배치가 필요했다. 만주 관동 신제2방면군(新第二方面軍)의 예비부대였던 제111사단은 1945년 4월 4일 제17방면군에 편입되면서 제주도 진출의 명령을 받는다(築參電 第2098號, 機密作戰日誌(乙綴)). 4월 8일 참모장 및 58명의 선발대는 제주도를 시찰한다(玄師參電 第60號, 機密作戰日誌(乙綴)). 공식적으로 제111사단(장 중장 이와사키 도미오 岩崎民男)은 4월 14일부터 만주 관동군 예비부대에서 벗어나 이치(市)부대 이름으로 신설된다. 신설과 동시에 조선 내로 이동을 개시하고 곧바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5월 상순에 제주도 산지항에 상륙하면서 제58군 예하로 편입된다. 독립산포 제23대대, 분진포 제1대대, 전신 제11연

4) 두 부대가 서남부 지역에 상륙하기 전 이미 이곳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축성작업 중인 여수요새사령관 휘하의 유수 제30사단의 일부 부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두 부대 상륙 후 96사단에 편입된다.

5) 제58군은 제17방면군을 통해서 일본군 대본영에 직할되지만 제주도의 독자적 방비 및 작전에 관한 입장을 취한다. 관찰구역은 추지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이며 독자적으로 군 배치 및 작전 지도를 관장한다.

대, 제1, 제3독립작정소대, 전차1중대, 야전중포병부대1중대, 제1특수근무대와 함께 상륙하여 5월 중순까지 제58군사령부의 축성작업을 지원한다(部隊編制概要). 그 당시 참전한 일본인 가미키 사토루(神木悟·德島縣 阿南市·81세)씨에 의하면 자신의 부대는 산지향에 하선하여 서부지역의 출발지인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지역으로 이동하고, 며칠을 그곳에서 야영한 후 한라산 기슭이며 해발 1,200m의 노로악과 붉은오름 일대에서 축성작업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초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은 미군 공격예상로(그림 1 참조)에 따라 방어선을 지정하는데 서부지역(안덕-대정-한경-한림-애월)에 '주진지대(主陣地帶)'를 배치하고, 중부지역(제주시-서귀포)에 '공세준비진지(攻勢準備陣地)' 그리고 동부지역(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에는 '유격진지(遊擊陣地)'를 배치하고 있다. 제1방어선이 주진지대이고, 제1방어선을 지원할 부대가 공격준비진지대이며,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부대가 유격진지대이다.

제111사단은 서부지역에서 미군 예상공격로인 한림과 모슬포를 동시에 담당하는 제1방어선에 배치되면서 사령부는 해안으로부터 약 10km 올라온 북제주군 애월면 어도리 발이악(바리매)에 안착한다.⁶⁾ 사령부가 해안보다는 한라산 중턱에 안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내륙결전의 전술전략을 적용하고 있음에 근거한다.

III. 중기 작전범위 변경 단계 (1945.5.21 - 6.24)

1945년 6월 중순에 이르러 일본군 제121사단이 제58군 사령부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제111사단은 새로운 부대이동이 불가피하게 된다. 제121사단의 사령관은 마사이 요시토(正井義人) 중장이며 부대이름은 에이코(營光)로 1945년 1월 20일 중국 관동군 예하부대로 창설되어, 5월 21일에서 6월 20일 사이 제주도에 상륙한다(機密作戰日誌(乙綴)). 제121사단은 제111사단처럼 전투경험이 있고, 서부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제주에 배치

6) 미야타 세스코(宮田節子) 해설 『본토작전기록 제5권 제17방면군』 부표 제4 참고.

된 것이다. 따라서 제121사단은 서북부에 위치함으로써 제111사단의 기존 작전지역을 나누게 된다. 미군 예상공격로인 한림지역에 제121사단이 배치됨으로 제111사단의 작전범위는 서부지역 전체에서 서남부지역으로 좁혀지면서 영역은 모슬포, 고산 그리고 안덕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작전범위의 변경으로 사령부의 위치도 북제주군 애월읍 발이악에서 당오름, 원물오름 그리고 도너리오름 지역(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으로 변경된다.⁷⁾ 서남부 지역으로 작전범위가 정해짐과 동시에 동부지역을 담당하는 독립혼성 제108여단으로부터 2개 대대를 증원받게 된다(강순원, 2006: 44).

일본군 제111사단 주둔 중기 단계의 시기 동안에도 제58군 사령부의 전술전략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 해안결전보다는 내륙결전에 무게를 두고 부대배치 및 갱도진지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IV. 말기 정착 단계(1945.6.25 - 8.15)

제58군과 제17방면군의 합동 전술전략은 미군이 제주도내 비행장과 항만시설 등을 점령하여 본토공격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비행장과 항만시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안결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58군의 전투태세는 이러한 전략을 상당히 왜곡시켜 내륙결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결7호 작전 초기에 작전 지휘부인 제17방면군과 현지 부대인 제58군 사령부간 방어 전략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었다(參謀電 第3877號, 機密作戰日誌(乙綴)). 하지만 오키나와 내륙결전이 패전으로 끝남에 따라 제17방면군과 제58군 사령부의 작전전략은 동일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제주도 서남부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제17방면군 미야자키(宮崎) 참모본부 제1부장은 7월 1일과 2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작전준비를 실제 관측하고 메모를 남기는데 그 내용은 「금후중점을 서남부에 집약하기를 요함」이었다(츠카사키, 2004: 256-7). 결국 미군이 상륙할 시점이 다가올수록 상륙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의 서남부 지역으로 판단하였으며 해안결전으로 전술전략이 통일되며 이곳으로 지속적인 병

7) 『第58軍配備概見圖』,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년 참고.

력 증강이 요구되었다. 7월 31일 제58군 사령부는 독자적으로 독립혼성 제108여단 주력부대인 5대대를 서남부지역(청수리)에 추가 배치시키도록 하고 있다(機密作戰日誌(乙綴) 昭和 20. 7, 電報文 124).

제17방면군도 서남부의 해안결전에 대한 작전 중요성을 깨닫고 이전에 주진지대, 공격준비진지대 그리고 유격진지대의 역할분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분담을 하달하면서 제주도에 주둔한 부대의 역할을 연안구속병단과 기동결전병단으로 구분하게 된다. 연안구속병단이란 상륙예상지점에 배치되는 병단이고, 기동결전병단은 복수의 예상되는 상륙지점 어디에라도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병단이다. 이 작전명을 받은 제58군 사령부는 8월 1일에 제주도내 참모를 모아 작전계획의 변경을 명령한다(츠카사키, 2004: 258). 여기에 제111사단은 연안구속병단으로 소속되며, 전투시 한발도 후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후까지 싸우면서 미군에게 충격을 가하는 결전태세를 갖추게 된다. 또한 기동결전병단인 제121사단, 제96사단, 제108여단은 항상 연안구속병단을 도울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

내륙결전에서 해안결전으로 전술전략이 바뀌고 동시에 서남부지역의 제111사단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예하부대가 작전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장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 특히 산방산 - 단산 - 눈오름 - 율라봉 - 군산 일대는 제111사단의 예하부대인 보병 제245연대를 중심으로 증강부대들이 배치되어 최후 결전을 준비한다.

V. 해군과의 관계

1931년 3월 해군이 제주도 서남부 모슬포 평야(알뜨르)에 항공기지를 건설하면서 일본군 주둔이 시작된다. 1937년 8월 중순 중일전쟁 전면전이 발발하면서 제주도 해군 항공기지는 일본군의 주요한 공격 거점기지가 된다. 난징, 상하이 등의 해군 폭격기의 거점부대인 오무라(大村)항공부대가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제주도 알뜨르 항공기지로 이동하게 된다. 일본군이 11월 중순 상하이를 점령한 후 오무라 해군항공부대는 다시 본거지를

제주도에서 중국 영토로 이전하기 전까지 일본 해군이 제주도 군사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

육군에 의해 모슬포의 레이다 기지의 설치가 이뤄짐과 동시에 제주도는 공격을 위한 거점기지가 아니라 방어기지로써 커다란 변화가 진행된다. 동시에 제주도 군의 주도권은 해군에서 육군으로 이동된다. 이로서 중일전쟁 시에 주요한 공격역할을 담당했던 알뜨르 항공기지는 전쟁 말기에 와서는 육군이 미군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방어 비행장으로 전략하게 된다. 이유는 미군의 제주 공격을 예상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뜨르 항공기지를 일본 본토 공격의 중간지역으로 활용할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⁸⁾

본토결전준비는 해군과 육군이 합동으로 이행하는 특공작전의 운용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양자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나타난다. 1945년 4월 8일 육해군 지휘관계를 새롭게 하는 규율을 제17방면군 사령부가 명령으로 하달한다. 본토결전은 육군의 지휘 하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육군이 통일지휘권을 지녀야 하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해군 항공기지를 포함한 해군은 제58군 사령부가 통일지휘권을 지니도록 진해경비부(鎭海警備府)에 명령을 하달한다(部隊編制概要).

육군이 주도권을 잡은 후에도 육군과 해군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제각각 결전준비를 진행하는 문제가 야기된다(즈카사키, 2004: 239). 1945년 6월 16일 도쿄에서 제17방면군 군참모장에게 보낸 전보문에 따르면, 제주도 전쟁준비 강화를 위해 해군비행장의 불필요한 공사를 즉각 중지하도록 해군과 교섭 중임을 밝히고 있고(電報文 第56號, 機密作戰日誌(乙綴)), 7월 30일 조선군관구 사령부가 제58군 사령부에 보낸 내용에도 모슬포 해군 항공기지에서 중요성이 낮은 기지는 가능한 한 사전에 미리 파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機密作戰日誌(乙綴)).

하지만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111사단이 주둔한 지역은 군사적으로 높은 의미가 존재했으므로 해군의 특공기지들이 속속히 건설된다. 송악산

8) 일본용어로 비행기를 이착륙시키는 장소를 명명함에 있어서도 육군은 비행장이라 하고, 해군은 항공기지로 상이하게 지칭한다.

에는 카이툰부대를 설치하여 모슬포 지역에 들어오는 함대에 대해 가미가 제적 해군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으며, 이와 유사한 진양부대(津洋部隊)가 수월봉 일대에 배치되어 상륙하려는 미군에 대해 특공정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였다. 제주도에 주둔했던 진양부대는 진해경비부 소속 제45119-120 진양대가 진출하였는데 그 중에 120진양대의 오노(小野)부대가 서남부 지역에 배치된다. 이 부대는 1945년 3월 25일 편성되어 성산포에 상륙하고 한림에서 대기하다가 4월 29일 고산리 수월봉 해안으로 이동하며, 특공정 五형 26척을 보유했으며 총원은 191명이었다. 이와 더불어 미군의 진격이 예측되면서 7월 20일에는 제주도 서남해면인 송악산, 가파도 및 마라도 일대인 반경 20km 지역에 5호기뢰 1200개가 부설된다.⁹⁾

육군의 지휘 하에 육해군 합동작전은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상륙한 부대는 육탄공격으로 막으려는 목적과는 다르게 제각각의 결전준비를 이행하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 사단 임무와 규모 및 배치현황

I. 제주 방어를 위한 사단의 임무

전쟁말기 제주도에 주둔된 일본군의 작전목적은 1945년 7월 13일 우메즈(梅津) 참모부장이 제17방면군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사령관에 보고한 내용에서 분명해진다. 그는 사령관에게 「제주도에 있어서 작전목적은 적의 공중, 해상 기지설정 기도를 분쇄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 작전초기에 있어 공세를 취하여 적을 격멸하도록 작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바로 그날 육해군 공동 「결호항공작전에 관한 육해군 중앙협정」이라는 별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항공작전에 있어 주로 특공전법으로 미군의 상륙전단을 격멸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츠카사키, 2004: 257). 다음날 7월 14일 긴급기밀작전 전보의 별지에는 「결호작전에 있어서의 대전차

9) 『濟州島南西海面機雷敷設要表』,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년 참고. 츠카사키(2004: 258).

전투요강」이 첨부되어 있다(電報文 第64號, 機密作戰日誌(乙綴)). 이 요강은 「일사필쇄의 특공에 의한 육박공격을 주체」로 하고 있다. 육박공격이란 병종을 불문하고 전차에 대해 폭탄을 안고 몸 하나로 돌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하면 상륙시 공중해상 특공을 빠져나와 상륙해 온 미군부대에 대해서는 인명을 무기로 특공을 진행한다는 작전을 함축하고 있다(츠카사키, 2004: 258).

제111사단은 제주도 서남부지역에서 연안구속병단으로서 해안결전에서 육박공격으로 미군 상륙을 저지하고 타격을 주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 임무의 완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본토를 방어하여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만일 방위에 실패하더라도 일본 본토가 아닌 지역에서의 손실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물자수송이 필수조건이 된다. 이 때 제주도를 포함한 조선해협은 일본의 전쟁계속의 생명선이 된다. 제주도가 함락되면 조선해협에 미군 잠수함 및 함선의 자유로운 항해를 허락해버리는 꼴이 된다. 따라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않아도, 제주도를 공략받는 것만으로 일본의 전쟁계속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미군의 최종목표인 일본수도 도쿄가 있는 관동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항공기지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가능한 지역으로는 규슈 남부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제주도임에 틀림없다.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하게 되면 당연히 전진기지로써 항공기지가 건설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군은 미군에게 제주도 상륙을 허락해서는 안 되었고, 이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제주도 서남부 지역으로 제111사단 주둔지였다.

II. 일본군 전체 및 제111사단 단독 배치 현황

일본군 전체배치 현황은 1945년 8월에 일본군이 작성한 두 장의 지도(「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第58軍配備概見圖 濟州島)」,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濟州島兵力基礎配置要圖)」)와 1945년 9월에 주한미육군사령부의 주간정보요약에 수록된 두 장의 지도(「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

(1945. 9. 25)», 「일본군 병력배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도내에 산재한 일본군 주둔지 위치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지도 가운데 「제58군배비개견도」는 제주도내에 산재한 각 진지의 위치와 개별 유형(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복곽진지(複郭陣地)/전진거점(前進據點)/위장진지(偽裝陣地))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자료이다. 이 지도는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진지 지역과 일치할 정도로 상당히 정확하다.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는 일본군이 초기 예상한 미군의 제주도 상륙 지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제주도의 권역별 진지 성격(주진지대/공세준비진지/유격진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군이 작성한 「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1945. 9. 25)」는 위 일본지도가 표시하지 못한 각 사단 및 여단 예하 보병연대/대대, 공병부대, 야전병원 등과 독립포병부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 각 지역별 부대 배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군의 「일본군 병력배치도」는 제주도내 일본군 참호진지와 갯도진지 분포 지역을 구분하여 놓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완성된 갯도진지만을 표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해방 직후 일본군의 갯도진지 구축작업의 진척 상황 및 현재 보존 상태와의 비교를 시도해 볼 수 있다.¹⁰⁾ 이들 4개의 지도를 근거로 새롭게 제주도 일본군 배치 현황을 <그림 1>로서 작성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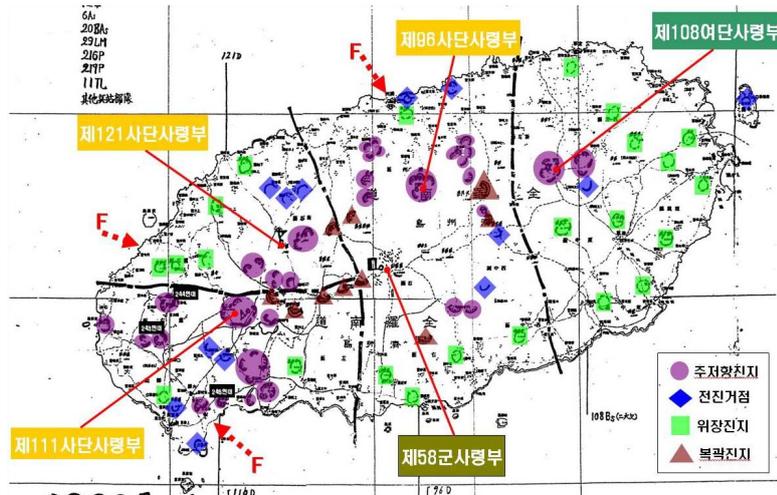
제주도내 일본군 배치는 지역별로 분류하여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전역이 서부, 중부, 동부로 크게 구분되는데, 중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는 제96사단이 주둔하며, 한라산 어승생악에 제주도 주둔 일본군을 지휘하는 제58군 사령부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동부에는 독립혼성 제108여단이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서부지역은 특별히 미군 상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로 구분되어 서북부에는 제121사단이 주둔하고, 서남부에는 제111사단이 주둔하게 된다.

<그림 1>에서 굵은 점선이 각 사단과 여단의 경계선을 보여주며 어승생악에서 제58군 사령부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군공격 예상지점은 제

10) 지면상 각각 지도는 삽입하지 못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식(2006), 강순원(2006)을 참고할 것.

<그림 1>

제주도 일본군 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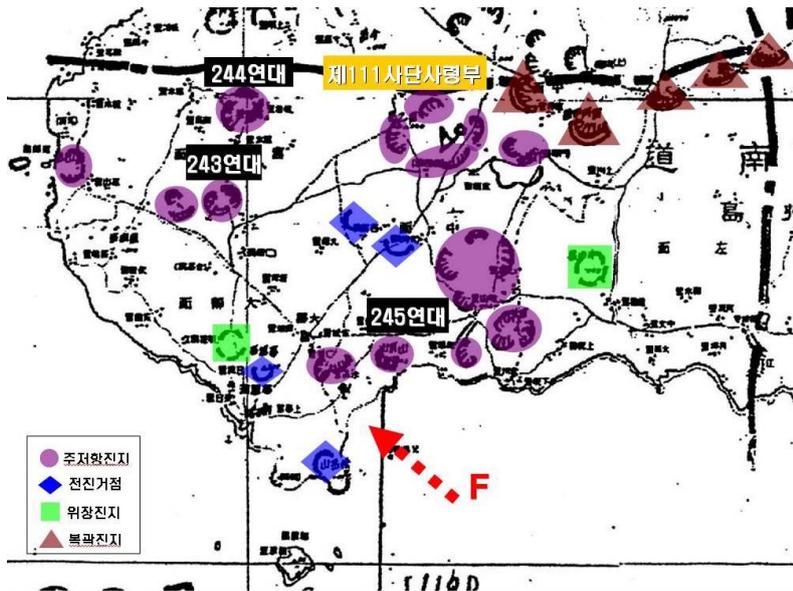
주시, 한림 그리고 모슬포 지역에 영어 F와 화살표로 위치가 설정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전역에 분포된 진지유형인 주저항진지(원), 복곽진지(삼각), 전진거점(마름모), 위장진지(네모)의 위치를 한 눈에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는 제111사단 주둔 지역에서 미군 상륙 예상로(F)와 각 진지유형을 한 눈에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제111사단 사령부는 해안부에서 약 10km 북으로 올라온 당오름, 도너리오름 그리고 원물오름을 원으로 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각 오름의 정상에 오르면 상륙하는 미군의 정세를 쉽게 파악 가능하며 작전을 하달하고 포 지원사격을 주목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 예하부대로 보병 제245연대는 단산, 산방산, 월라봉, 논오름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보병 제243연대는 가마오름을 중심으로 이계오름과 저지오름 일대에 분포하고, 보병 제244연대는 새신(신서)오름을 중심으로 굽은오름과 당산봉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사단본부와 연대본부들은 주저항진지로서 미로와 같은 갱도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가상 미군 공격선이 송악산과 산방산 사이로 예측됨에 따라 이 지역에 집중적 주저항진지를 구축하여 상륙하는 미군에게 일격을 가할

<그림 2>

제111사단 배치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제111사단의 병력은 사령부 245명을 비롯하여 각 연대에 1천 1백 명가량을 배치시키고, 이외에 공병, 포병, 통신, 치중, 야전병원 등을 배속시켜 1만4천 명의 병력을 지니고 있지만, 병력 증강을 제58군 사령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독립예하부대를 증강 배속시키고 있다.

III. 사단의 규모(편제 및 무기현황)

종전 때까지 제주도에 주둔한 병력 추이를 파악하게 되면 제111사단이 다른 주둔부대와 비교해서 어떤 전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다른 결호작전지역의 부대와 비교해 봄으로써 제111사단 병력을 일본군 다른 사단과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제주도 주둔 병력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고치(高知)현에 주둔했던 사단과의 전력을 비교해 본다.

미야타가 해설한 『조선개요사』와 『미군정보고서』에 나타난 제주도 주

<표 2> 제주도 주둔 일본군 병력 현황(1945. 8. 15.현재)¹¹⁾ (단위: 명)

부대명	인원	원소속부대	부대명	인원	원소속부대
제58군사령부	370	경성 신철	진신11연대	850	북중국방면군
제96사단	9,000	일본 신철	독립공병제126대대	890	
제111사단	12,000	관동군	독립공병제127대대	890	
제121사단	13,000	관동군	제1독립작정소대	40	관동군
독립혼성제108여단	6,000	일본중부군	제2독립작정소대	40	관동군
독립전자제12연대제14중대	120		제3독립작정소대	40	관동군
독립속사포(대전차)제32대대	480		독립자동차제300중대	180	
분진포(로켓포)제1대대	850	중국과건군	독립치중병제65대대	400	
박격포제29대대	1,400		제1특설근무대본부	20	
독립구포(박격포)제23대대	640	관동군	특설육상근무제110중대	310	
제12포병사령부	120		특설근무대 4- 13중대	6,600	
독립야포병제6연대	2,100		제64병참병원	400	
독립산포병제20연대	2,900		독립고사포제59중대	120	
야전중포병제15연대	1,100		독립고사포제60중대	120	
독립중포병제9중대	110		합 계	74,781	

둔 일본군 병력 현황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개요사』에서 집계한 병력은 74,781명이지만 『미군정보고서』에는 49,9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개요사의 집계에 의한 병력을 기준으로 서술한다.¹²⁾

제주도 주둔 일본군 병력 현황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는 관동군 출신의 제121사단과 제111사단이다. 두 사단은 1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경험을 지니고 있었기에 서부지역에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제111사단은 제주 주둔 일본군 중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임을 인식할 수 있다.

다음은 결호작전을 이행하는 제주도지역과 고치현과의 화력을 비교해 본다. 일본 본토와 본토 밖에서 미군을 방어하는 화기의 비교이다. 고치현

11) <표 2>의 실제 병력 인원은 61,090명이다. 하지만 미야타의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부표제 3에 나타난 인원은 74,781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부표에 표기되지 않은 부대의 병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두 자료에서 병력현황이 차이는 점은 일본군이 미군에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군이 제출한 자료에는 일본본토로 귀환하지 않은 병력은 제외된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조선의 징용자들은 종전이 되면서 현지에서 소집 해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은 조선개요사의 집계가 타당한 것으로 본다.

과 제주도는 모두 해안결전의 전술전략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작전범위는 제주도가 100km이고 고치현은 36Km로서 3배가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모든 화기에서 1/3 정도의 빈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표 3>에서 발견하게 된다. 고치현의 가장 정예부대는 제155사단으로 파악되는데 기관총은 188정, 연대포 62문, 박격포 12문의 화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제주도의 가장 정예부대인 제111사단과 제121사단은 거의 비슷한 정도 화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관총 72정, 연대포 24문, 야포 12문 혹은 27문을 보유하고 있다. 정예부대의 화기를 비교하면 거의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작전범위가 넓으면 서도 화기가 50% 수준으로 동일한 해안결전을 지시하는 것에는 주요한 의도가 담겨질 수 있다. 이는 육탄공격으로 화기보다는 육체로서 미군 상륙을 저지하라는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

<표 3> 고치(高知)현과의 화기 비교

정면	부대	범위	MG	RiA, BiA	A(10H)	BA	10K	15H	迫	噴
高知正面	11D	36KM	114	48	36					
	155D		188	62				12		
	205D		114	12	36				84	
	31As				12					
	6BAs				36					
	17SA							12		
	9自砲大							12		
	5FeAs中							2		
	22白大									16
	25白大									12
	26白大									12
	16LM									18
	17LM									18
	18LM									18
	37LM									18
計			416	122	120		14	12	168	40

濟州島正面	96D	100KM	110	18					18	
	111D		72	24	12					
	121D		72	24	27					
	108Bs		48	24	4				12	
	20BAs					36				
	29LM								18	
	1噴砲大									36
	6As				24		12			
	23臼大									16
	15SA							24		
	計				302	90	67	36	12	24

※ 약어풀이: MG 기관총, RiA BiA 연대대대포, A 야포, BA 산포, K 케논포, H 유탄포, 迫 박격포, 噴 분진포, D 사단, As 야포병연대, SA 야전중포부대, 臼大 구포대대, LM 박격포대대, Bs 여단, BAs 산포병연대, 噴砲大 분진포대대

출처: 本土決戰關係兵備綴. 高知正面 濟州島正面

가장 정예부대인 제111사단은 서남쪽에 배치되어 훈련과 축성을 병행하고 작전준비를 완벽하게 정비하는데 매진하면서 특공목적의 연안구속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111사단의 편제, 장비, 주요 병기 및 인원을 알아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명기된 인원수는 6,787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비교에 제111사단의 인원은 1만2천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제111사단의 독립예하부대의 인원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표 5>의 독립예하부대 인원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자동차는 150대로 집계되고 있지만 비교에는 100대로 제시되고 있고, 마필의 수도 2,007필로 집계되고 있으나 비교에는 1,000필로 제시되고 있다.

제111사단은 사령부를 중심으로 보병3개 연대와 포병, 공병, 통신, 수송(치중), 보급(병기근무), 야전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병기로는 척탄총, 경기관총, 기관총, 포병포, 연대포, 유탄포 등을 보유하고 있다.

<표 4>

제111사단 소속 편제 및 인원

부대명	편제 개요	인원	마필	자동차	주요 병기
사령부		245	17		MW 1, LG 2
보병3개연대 243/244/245	3대(9중 1MG중 1iA 소) 1A중 1TL소 1승 마소	3,454	734		MW 85, LG 84, MG 24, iA 6, RiA 8
사단포병대	1대(3중, 1대대단열)	540	476		10H 12
사단공병대		288	43	2	
사단통신대		207	40		
사단치중대	2치마중	1,022	472	119	LG 5
병기근무대		112		8	
제1야전병원		277	97		
제4야전병원		284	83		
방역급수부		239		29	
병마창		119	45	2	
비고	인원 12,000 자동차 100 마필 1,000				

※ 약어풀이: LG 경기관총, MG 기관총, A 야포, TL 통신, MW 척탄총, TA 속사포, iA 보병포, RiA 연대포, LM 경박격포, BA 산포, H 유탄포, FU 유탄산포
출처: 本土決戰關係兵備綴. 四團濟州島地區

제111사단은 관동군 시기에서부터 예하부대를 포함하고 있었고, 제주도 진출 후에는 제58군 사령부로부터 예하부대가 더욱 증강되고 있다. 예하부대는 제111사단의 보병연대를 지원하는 포부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표 5>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원은 독립산포병 제20연대 2,900명을 포함한 4부대를 합치면 총인원 6,89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111사단의 인원수 6,787명을 합하면 13,677명으로 약 1만4천명으로 집계된다.

예하부대는 2개 연대와 3개 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병기는 구포, 산포, 경박격포, 유탄포, 유탄산포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구포 제23대대, 분진포 제1대대, 야전중포 제15연대는 해안가 근접지역에 위치하여 보병 제245연대와 합동작전으로 해안에 상륙하는 미군에게 포사격을 하도록 배치되고 있으며, 독립산포 제20연대와 박격포 제29대대는 사령부에 위치하여 사령부의 지휘에 따라 지원포사격의 임무를 띠고 있다.

<표 5> 제111사단에 증강된 예하부대의 편제 및 인원

부대명	편제 장비 개요	인원	원소속부대(부대위치)
독립구포제23대대	2중대 단열 / 구포 16	640	관동군(단산일대)
분진포제1대대	3중대 단열 / 20cm FU 36	850	중국과견군(단산일대)
야전중포대제15연대	3중대 단열 / 15H 12	1,100	(단산일대)
독립산포병제20연대	3대대(3중대) 단열 / BA 36	2,900	(도너리오름일대)
박격포제29대대	6중대 단열 / 12cm LM36	1,400	(도너리오름일대)

※ 약어풀이: BA 산포, LM 경박격포, H 유탄포, FU 유탄산포
출처: 朝鮮軍概要史, 機密作戰日誌(乙綴) 昭和 20. 7

미군상륙 예상시기가 다가올수록 서남부지역에 지속적으로 부대가 증강되고 있다. 제12전차연대 제14중대가 새신오름에 배치되고, 12포병사령부 예하 독립야포병 제6연대가 당산봉 부근에 배치되며 또한 동부지역에 있던 독립혼성 제108여단의 전체 6개 대대 중 5개 대대가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서남부지역은 미군상륙이 임박하게 되면 제111사단이 주력부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주도 주둔의 병력 대부분이 집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쟁 말기 서남부에 주둔한 정확한 주둔 인원, 병기, 장비 및 편제를 파악하기란 어려움이 있지만 주둔 인원은 약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IV. 갱도진지(坑道陣地)

일본군은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미로와 같은 갱도진지를 구축하고 있다.¹³⁾ 갱도진지에는 지하에 숨어 미군의 항공 및 포 폭격을 피하면서 게릴라 작전으로 싸우려는 전술이 담겨져 있다. 서남부의 갱도진지 구축은, 제111사단의 진출 전부터 우수부대, 96사단 그리고 108여단으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따라서 명확하게 언제부터 서남부에 일본군 갱도진지 구축작업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¹⁴⁾ 특히 보병 제243연대본부에 있던 가마오름은 1945년 2

13) 제111사단 주둔 일본군 가미키씨의 증언에 따르면 갱도굴착을 “진지판다”라고 표현하였고, 진지가 완성되면 “중대호”, “소대호”라고 “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4) 전쟁 말기 일본군의 제주도 갱도진지구축은 1945년 1월부터 계획된다. 2월 상순부터 공사

월부터 시작된 갯도진지로 보기 어렵다.¹⁵⁾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갯도진지의 구조는 ‘一’자형, ‘ㄷ’자형, ‘王’자형, ‘격(格)’자형, ‘수지(樹脂)’형, ‘수직(垂直) 및 관통(貫通)’형, ‘복합(複合)’형, ‘미로(迷路)’형, ‘T자형’, ‘H자형’, ‘F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 중에 제111사단의 갯도진지 구조는 대부분 수직 및 관통형 그리고 복합형을 띠고 있다. 수직과 관통형으로는 가마오름, 논오름, 율리봉, 산방산이 대표적이고, 복합형은 첫알오름과 가마오름이 대표적이다(강순원, 2006: 64).

갯도진지는 방어진지의 역할을 하면서 유형별로 <표 6>에서 나타나듯이 4종류의 진지로 구분되며,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 전진거점(前進據點), 위장진지(偽裝陣地), 복곽진지(複郭陣地)로 명명되는 것이 그것이다. 위장진지는 적의 포 폭격의 흡수교란 및 적의 진행 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전진거점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두고, 적에게 전개방향을 틀리게 하여 주저항진지에 접근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주저항진지는 진지구축의 완성도가 높으며 주력을 다하여 방어하는 진지로서 보병의 향전지대와 그 후방의 주력보병 및 그 설비로 이루어진다. 복곽진지는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마련된다(박찬식, 2006 173-174).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에 갯도진지는 104곳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111사단에 존재하는 갯도진지가 34개로 제주도 주둔 다른 지역보다 많다. 특히 가장 주요한 방어진지인 주저항진지의 수가 제주도 전체 54개 중에 22개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수이며, 이로서 서남부의 제111사단의 병력 배치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이밖에 제111사단은 전진거점 5개, 위장진지 2개 그리고 복곽진지 5개를 구축하고 있다.¹⁶⁾

부대의 수송을 개시하였고, 2월 중순부터는 세부 정찰과 아울러 진지구축에 착수하기로 한다. 제주도에 대한 선박 수송의 지연, 진지구축에 필요한 자재의 마련, 동원에 수반되는 요원의 교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빨라야 2월 중순으로 판단된다.

15) 가마오름을 위시해서 몇 갯도진지는 해군에 의해서 구축작업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표 6 >

일본군 방어진지 현황(단위: 개소)

	주저항진지	전진거점	위장진지	복곽진지	합계
제111사단	22	5	2	5	34
제121사단	7	5	3	1	16
제96사단	17	6	5	5	33
제108여단	8	2	11	-	21
합계	54	18	21	11	104

참고: 第58軍配備概見圖

사단의 갱도진지는 3단계로 구분되어 구축작업이 진행된다. 제1단계는 경엄개(經掩蓋)식으로 진지 내 교통시설, 방공에 대한 응급시설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지휘감시소, 관측소 혹은 탄약, 식량, 물 등을 보관할 때는 이 단계에서 마친다. 제2단계는 장애물과 병행하는 과정을 거쳐 화기용엄체(火器用掩體), 엄포소(掩砲所)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사격, 시찰, 연락, 장애, 교통, 엄호 등의 설비를 갖추고 상호조직적으로 운용되도록 설치하며 응급태세를 정비하여 완료한다. 제3단계는 점차 진지의 강도를 높여 역습을 위한 제시설 및 유격거점과 병행한 위장진지 등을 구축하고 기타 일체의 공사를 실시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필요시 교통망을 차단하기도 한다. 병사용, 지휘관용, 의료용, 연료, 탄약, 식량 및 엄초포소를 갖추게 된다.¹⁷⁾

그 당시 제111사단 보병 제244연대 제1대대 제3중대에 소속되어 굽은오름에 주둔했던 가미키씨의 증언에 따르면 갱도굴착은 만주에서부터 개인 지급품으로 지니고 다닌 팽이와 삽에 의존하고 있다. 보병은 반드시 팽이와 삽 중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해서 갱도를 파내었고 여기서 나온 송이 등은 도구에 담아 어깨에 메고 날랐다. 그런데 관통형 갱도진지 10여 곳과 갱도진지 흔적을 합하면 약 20여 곳의 갱도들이 중대병력(약

16) 2005. 9.1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현장답사를 통해 위장진지(가시오름, 첫알오름), 전진거점(송악산, 남송악) 그리고 주저항진지(당오름, 원물오름, 도너리오름, 단산, 산방산, 월라봉, 군산, 노오름, 광해약, 새신오름, 이계오름, 굽은오름, 가마오름)을 탐사하여 확인하였다(황석규 박찬식, 2006; 황석규, 2006).

17) 日本參謀本部 教育總監部, 『別紙第四 主要 築成施設 收量表, 『上陸防禦教令(案)補遺』 1945. (강순원, 2006: 62).

200명)만으로 불과 2개월 정도에 구축되고 있다. 결국 제111사단 사령부 및 3개 연대에 구축된 갠도진지들은 몇 갠도진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판단할 수가 있다.

5. 일본군의 주민 동원

일본 대본영(大本營)은 결호작전에 주민 동원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대본영은 오키나와전에서처럼 결7호 작전에서도 옥쇄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지시에 따라 제111사단의 서남부지역에서 일본군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의문시된다.

일본 대본영은 최소 필요한 주민만을 남기고 노약자를 전장에서 떠나게 하려는 생각이었고, 제주도 주둔 육군도 이에 동조하여 주민을 대피시키려 했다. 하지만 주민대피는 일본군이 제주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내린 계획이 아니라 작전수행에 있어 일본군에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보급이 한정된 섬에서의 군 식량 확보의 필요성이었고, 둘째는 작전수행상 제주도 주민이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일본군은 제주도 주민을 믿지 않았다.¹⁸⁾ “제주도민이 미군과 밀통하기도 하고, 투항하여 군사기밀이 새나가는 점. 또 일본군에 다수 포함된 조선인 병사가 자신의 부모나 아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동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전의를 상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츠카사키, 2004 250) 주민을 도피시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제주도 주민의 피난에 대한 논의는 제58군 사령부, 제96사단이 도착한 4월 하순부터 시작된다. 4월 23일 제17방면군 참모장은 제58군 사령부와 제96사단 참모장에게 ‘제주도 주민 처리 특히 육지에 피난 이주시켜야 할 인원, 수송, 수량 등에 대략적인 수, 운전시기에 관하여 알리라’는 전보(機

18) 오키나와전에서도 일본군은 오키나와주민들을 직간접으로 살해하게 된다. 더불어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주민의 수는 10만을 넘고 있다.

密作戰日誌(乙綴) 昭和 20. 4, 電報文 122)를 보낸다. 또한 4월 28일에 장래 전장화될 것을 고려하여 일본군에 저해가 될 입도자를 적극 제한하는 “입도자 제한에 관한 건”(機密作戰日誌(乙綴) 昭和 20. 4, 電報文 141)을 행정통감(政務統監)에서 관구참모장(管區參謀長)에게 타전한다. 5월 22일에는 제17방면군 참모장이 제58군 참모장에게 ‘주민처리에 관하여 전력을 다해 총독부를 재촉하여 근일 중으로 결정 회신하겠음’이라고 타전(機密作戰日誌(乙綴) 昭和 20. 5, 電報文 74)하고 있다.

일본군은 제주도 주민의 노인, 유아, 부녀자 5만을 본토로 피난시켜야 한다고 결정하고 6월 이후 귀환선을 이용해 수송할 계획을 잡는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인원과 군은 작전행동을 취하게 되어 전도일치(全島一致)로 미군을 격파하려고 한다. 따라서 노약자 피난, 반항세력 색출 및 필요 인원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조한다(部隊編制概要). 이를 실행에 옮긴 제1회 피난선은 주민 약 5백 명을 수송 중에 조난됨에 따라 중지하기에 이른다. 제주도 주재관이었던 센다 센페이(千田專平)도 “제1회 피난민을 태운 배가 조난했기 때문에, 수송은 일부만으로 그치고, 남은 사람은 미군 상륙시에 산에 들어가 군과 행동을 같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모리타, 1964: 18)라고 증언하고 있다.

츠카사키씨는 제17방면군이 1945년 7월 30일에 작성한 “조선을 중심으로 한 7월 말 경의 정세판단”을 인용하면서 제주도 주민에 닥칠 미래를 예상하고 있다. “일부 혼란된 장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걸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은 여전히 사대사상의 구태를 벗기기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만일 적기의 폭격에 임하면 조선의 일각에 적군의 진행을 본 적이 없지만, 민심 일반의 동요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태업상태적 현상의 발생을 볼 가능성 크다. 적군이 상륙하면 이에 호의를 갖는 자가 비교적 많으므로 주민에게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만일 제주도에 정말 미군이 상륙하게 되면, 일본군에게 살해되는 제주도민의 수는 오키나와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츠카사키, 2004: 253-254)라고 적고 있다.

서남부 구술자료를 근거로 결호작전에 담겨있는 주민동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란 어려움이 많았다. 단지 일본군과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관계만이 파악되었고, 행정관리와 주민과의 관계만을 알아볼 수 있었다.¹⁹⁾ 일본 주둔군은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갈등 및 곡물착취의 행위는 거의 없었다. 또한 서남부지역에서 노약자 운송이나 불순분자의 색출을 이행한 증언들도 없었다. 일본군 지휘부는 일체 주민과의 밀거래(물물교환)를 공식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주둔군 역시 식량부족으로 주민들과 비밀스런 물물교환이 이뤄졌는데 주민들은 보리떡, 달걀 등을 제공하면 주둔군은 대부분 담배로 교환하였다.

일본 주둔군은 주민에게 대부분 해로움을 주지 않은 대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강제동원, 공출 등이 이뤄졌다.²⁰⁾ 하지만 몇몇 지역(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에서는 일본군이 제주 여성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 여성들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행정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일본 주둔군에게 먹을 물을 길어주게 하는 ‘물공출’이 행해졌다는 증언이 있다.

대부분의 증언에서 동일성을 보여주는 현상은 강제 징용, 강제노무동원 그리고 공출로 나타나고 있다. 1922년에서 1933년생까지 인터뷰²¹⁾한 결과를 보면 강제노무동원인 경우는 알뜨르비행장 확장공사작업과 석알오름, 가마오름 등지에서의 갠도진지구축에 동원되고 있다. 오전 6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치며, 2달 동안 작업장에서 노무 동원되고 2달 동안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식사가 부실하여 집에서 작업장으로 갈 때 미숫가루를 가지고 가서 허기를 채우고 있다. 1924년생부터 연성훈련에 들어가고 있는데 출생지의 초등학교 교정에서 일주일에 두 차례 등교하고

19) 탐라연구소 연구팀(지영임허호준)은 제주도 출신 강제동원자 53명을 인터뷰하고 있다.

여기서 10명이 서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였다.

20) 알뜨르비행장이 개설될 때는 그 곳에 있던 마을과 밭들을 수용하고 있다. 마을은 강제 철거되었고, 밭은 수용을 거부하더라도 그대로 비행장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비행장 안에 민유지가 남아 있었다.

21) 인터뷰 대상자는 서남부지역의 다음 10명이다. 임00(27년생, 상모리), 김00(24년생, 하모리), 문00(21년생, 일과1리), 양00(26년생, 무릉리), 구00(24년생, 사계리), 이00(24년생, 서광리), 송00(22년생, 덕수리), 오00(26년생, 창천리), 오00(32년생, 창천리), 김00(?)

짧게는 한 달이고 길게는 1년 동안 일본어, 정신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징병되고 있다. 대부분 제주도 일본군 주둔지에 배치되어 갠도진지구축에 동원되고 있다.

주민들에게 가장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 것은 공출이다. 보리, 고구마, 면화, 낫쇠 등 군수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출했다. 심지어 항공기용 알코올연료를 뽑기 위해 말린 고구마(빼테기)도 강제공출되었다. 밭의 크기에 맞게 공출량을 정하였고, 공출량을 채우지 못했다면 길을 닦는 일에 동원되거나 심한 경우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그래서 “경찰보다 면서기가 더 무섭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들도 부친이 강제노무동원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모슬포 연병장 안에는 어린이부대(子供部隊 - 고도모부타이)가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작업도구(곡괭이, 삽, 끌, 망치)의 장부를 정리하고, 사무소 청소 혹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여 일본군에게 물고기를 제공하였다. 일본인 노무책임자들은 일반노무자들에게는 작업에 구타 및 연대 기합을 행하였는데, 어린이에게는 일반적으로 잘 대해 주었다.

6. 맺음말

일본 대본영은 제주도를 쉽게 미군에게 이양할 의도가 없었다. 결호작전 중 최하위 수준의 병력과 화력을 지닌 결7호 작전은 일본본토 밖에서 본토 방어를 위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일격에 타격을 주어 조약체결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제111사단은 결호작전의 방어임무를 수행할 제주도에 주둔한 가장 정예부대이다. 정예부대의 이동경로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지역이 서남부임을 판단할 수 있다. 미군 상륙시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육군과 해군의 합동 전술전략은 전투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육군 내부에서 지휘부와 현지부대간의 갈

등 그리고 해군에서 육군으로 작전지휘권의 이양에 따라 육군 내부와 육해군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전체 7만5천 명이 주둔한 일본군 중에 1만4천 명이 서남부에 배치된다. 병력으로만 판단하면 제111사단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 없지만, 미군 상륙이 화순항과 알뜨르비행장 방향으로 점차 가시화되어감에 따라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모든 병력과 화력은 서남부로 집결되고 있다. 제120사단까지 서부지역으로 진출할 모든 준비가 완료됨으로써 제주도는 오키나와전과 비슷한 8만4천 명 정도의 일본군이 주둔할 계획이었다.

서남부지역에서의 전투는 제주도 전체 일본군과 주민이 하나되는(全島一致) 옥쇄작전(玉碎作戰)의 시작이기도 하다. 만일 미군이 상륙하였다면 츠키사키의 표현처럼 일본군에게 살해된 제주도민의 수는 오키나와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군의 포격과 공격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도 오키나와를 능가했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세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일본군 전적지의 의미는 2005년 제주도가 공포한 '평화의 섬과 연결하여 그 가치를 정립하고 보존 및 활용하는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전쟁유적시설들은 제주인과 더불어 세계인들에게 과거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평화운동으로 승화시킬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를 지탱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군의 군사유적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적지를 보존, 정비 및 개발의 필요성, 기대효과, 정책방향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적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이 따라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역사성 인식과 미래지향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서남부지역 이외에 제58군사령부가 주둔했고 제96사단이 배치되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중부지역 연구뿐만 아니라 제111사단과 맞먹는 군사력을 지닌 제121사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후 제111사단의 이동 상황 자료가 부족하여 보다 체계적인 제111사단의

연구를 위한 자료탐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참고 문헌

1) 일차자료

『機密作戰日誌(乙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第58軍配備概見圖』,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參本第2課, 『本土決戰關係兵備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部隊編制概要』,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濟州島南西海面機雷敷設要表』,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1945.

日本參謀本部 教育總監部, 『上陸防禦教令(案)補遺』, 1945.

HUSAFIK(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Compiled under the supervision of Harold Larson, Chief
historian, Tokyo and Seoul, 1947, 1948.

2) 논문 및 단행본

宮田節子(1989),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森田芳夫(1964) 『朝鮮終戰の記録』, 巖南堂書店.

神谷丹路(1994), 「日本軍の足跡」 『韓國 近い昔の旅』, 凱風社.

塚崎昌之(2000), 「神州不滅」 本土決戰の實態 『季刊戰爭責任研究』 29, 日
本の戰爭責任資料センター.

강순원(2006),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제주군(2005),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박찬식(2006), 「제주도내 오름과 일본군사유적」, 『한라산의 역사유적』, 제주
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신주백(2003),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 현실』

제49호, 한국역사연구회.

제주도(2003),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제주도동굴연구소(2005),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1.

츠카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2004),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황석규박찬식(2006), 「제주도내 일본군 전적지 조사연구」, 『일제말기 제주도와 일본군 전쟁유적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황석규(2006), 「제주도 일본군 제111사단 주둔 실상 -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 『2006 朝鮮人中國人 強制連行強制勞動을 생각하는 韓日 交流 Network in 濟州道』,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제주도사연구회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주요어

제주도 주둔 제111사단 일본군, 결7호작전, 갯도진지, 서남부지역, 주민동원

K C I

The military–sociohistorical meaning of transfer, disposition, formation and strategy of Japanese troops stationed in Jeju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Suk-Kyu Hwang (Cheju National University)

75,000 Japanese troops stationed in Jeju island. This means that Jeju island play a prominent part for Japanese Defense at the end of the war. Although the Decisive Operation No. 7 has the worst troop in the Operations, Japanese Army wanted to give America a crushing blow in Jeju.

The 111th Division formed main position in the Southwestern area, which is geopolitically very important, of Jeju. The number of troops was close to 14,000. Foreseeing US army attack, almost Japanese troops staying in Jeju were assembled in this area. Local residents of Jeju were forced to participate in war for the Decisive Operation No. 7. If the US Army had disembarked in the Southwestern area of Jeju, there could have been such a crisis as in Okinawa.

Key Words

Japanese troops, the 111th Division, the Decisive Operation No. 7, the Southwestern area of Jeju, Us army attack